

다양한 식초·차 개발...“발효식품 우수성 알리고 싶어”

화순전남대병원, 간호사 힐링 페스티벌 개최

10월 농촌융복합산업인에 곡성 정인숙 초청 대표

각종 인증·16건 특허 출원... 지역 농산물로 90여종 발효식품 개발

“발효기술 연구 개발을 통해 소비자에게 친숙하고 건강한 발효식품을 제공하고 싶어요. 발효커피와 체험 학습장 운영으로 후손들에게 바른 먹거리와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습니다.”

전남도가 10월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곡성 농업회사법인 ㈜조정의 정인숙 대표(사진)를 선정했다. 조정은 곡성 옥과면에서 토마토, 멜론, 딸기, 사과 등 지역 농산물을 매입해 발효식초, 발효차 등 발효 가공제품을 제조·판매하는 6차산업 인증경영체다.

정 대표는 전국 농수산대학을 다니며 발효를 공부했다. 2005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본격적으로 발효연구를 수행, 체계한 지식을 전파했다. 식초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균주인 초모(醱母)를 여러 사람과 나누고자 초청을 설립했다. 조정은 농업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곡성군 등과 협업을 지역의 다양한 농산물

을 활용, 멜론 발효식초·차, 산양삼식초, 울금 발효차, 토마토 상큼주스 등 90여 발효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전통 발효식품의 명맥을 후손에게 전달하기 위해 초정생활발효학교도 설립했다. 지역 중·고등학교 교사의 학습공동체 연구활동, 농업인의 발효교육을 지원하고,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에서 체험실습 교실을 운영한다.

그 결과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식생활체합공간’ 인증, 할랄인증, 전통식품인증을 받았으며, 2021년 농진청 ‘품질인증 교육농장’ 인증, 미국 FDA 인증 등을 획득했다. 발효식품과 관련한 16건의 특허도 출원했다.

농촌·자연·관광을 연계한 여행 프로젝트 ‘곡성여기에 내뿜어 웃는 로컬체험여행’ 프로그램도 운영해 발효음료 및 와인 제조 발효체험을 통해 슬로푸드인 발



수 기업”이라며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과 상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가 확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효식품의 장점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 유통과장은 “조정은 소비자에게 제조·가공, 체험, 교육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선 농촌융복합산업 우수기업”이라며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과 상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가 확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전남대병원 간호부(부장 봉영숙)는 최근 간호사의 날을 맞아 의료현장의 최전선에서 코로나19를 물리치는 간호사들을 격려하는 ‘힐링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병원 치유의 숲에서 ‘간호사! 우리는 히어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신명근 병원장과 봉영숙 간호부장이 직접 참석자들에게 점심과 간식을 나눠주고, 각종 게임을 하는 등 화합의 행사로 치러졌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광주남부 법무보호복지공단, 남자청소년복지시설과 협약

‘한국 영화계 거목’ 이태원 태흥영화사 설립자 별세

임권택 감독과 서편제 등 제작

‘아재야제 바라야제’, ‘서편제’ 등을 제작한 한국 영화계의 거목 이태원 태흥영화사 전 대표가 24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낙상사고를 당해 약 1년 7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고인은 1938년 평양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전쟁 때 가족과 떨어져지면서 슬한 어려움 속에 성장했다. 중학교 졸업 후 부산에서 상경한 뒤에는 한때 ‘조직’에 몸담기도 했다.

1959년 우연히 만난 무역업자가 영화제작을 권유하면서 고인의 첫 영화 ‘유정천리’가 탄생했으나 흥행에는 실패했다.

그러다 1973년 인수한 의정부 소재 빌딩에 있던 극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다시 영화계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1984년 부모 직전의 태정영화사를 인수해 ‘태정영화사’를 설립하면서 20년 만에 다시 영화제작의



정일성 촬영감독(왼쪽), 임권택 감독과 나란히 앉은 이태원 태정영화사(가운데) 설립자.

길로 나섰다. 이때 임권택 감독과 ‘비구리’로 만나게 됐지만 불교계 반발로 영화 개봉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무릎과 무릎 사이’, ‘뽕’, ‘기쁜 우리 젊은 날’ 등으로 이름을 알렸고 1989년부터 ‘아재야제 바라야제’, ‘장군의 아들’, ‘서편제’ 등이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얻었다.

/연합뉴스

지휘 거장 하이팅크 타계

네덜란드 출신의 전설적인 지휘자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92세.

1929년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난 하이팅크는 암스테르담 음악원에서 바이올린과 지휘를 공부했으며, 1954년 바이올린 단원으로 활동하던 네덜란드 라디오 필하모닉에서 지휘자로 데뷔했다. 1961년 네덜란드 왕립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RCO) 수석 지휘자가 된 뒤 27년간 활동하면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영국 코번트가든 왕립오페라하우스 등의 음악 감독을 맡았다.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도 역임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사자훈장’을, 프랑스에서는 ‘문예 공로훈장’을 받았고 영국에서는 명예 동반자(Companion of Honour·C.H)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남상협)가 최근 광주시 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시설장 황철현 신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양 기관은 광주 지역 위기청소년을 공단과 의뢰 연계해 위기청소년을 보호·선도하고 심리·정서적 서비스를 지원하며 재비행 방지, 사회복귀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남상협 지소장은 “광주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지원하는 협력망 구축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며, 앞으로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TV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두 번째 남편(재)	40 맨 인 블랙박스 50 좋은아침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국가대표 와이프(재)	30 930 MBC 뉴스 55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55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10]	00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4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기본 좋은 날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40 팔도밥상 스페셜(재)	00 연모(재)	15 책, 기억록 30 헬로킴지 신비한 자연교실 3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섬마을 할머니(재)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안녕 우리말 2021(재)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연중 라이브(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35 미나디(재)	00 KBS 뉴스타임 10 키오캐(재)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좋아좋아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 50 노래가 좋아(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1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저녁뉴스 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오매 전라하는	50 시사타치! 따따부따(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우기	50 빨강 구두	05 두 번째 남편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국가대표 와이프	30 백종원 클래스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연모	0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더 라이브	45 개는 훌륭하다	30 선을 넘는 녀석들 마스터-X 스페셜	00 흥천지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1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세상의 모든 다큐	05 스포츠 매거진 45 지도의 뒷면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이야기	4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우당탕탕 은하인전선(재)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07:00 냉장고 나라, 코코몽	12:10 아주 특별한 기행 - 한국을 담다	19:05 하트가 빛나는 순간
07:15 출동! 슈퍼윙스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35 최고의 요리비결 공방
07:30 숲속 배달부 빙빙	14:10 EBS 다큐프라임	19:50 다크영화 길 위의 인생
07:45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5:0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딩동댕 유치원	15:25 클래스 e	<날마다 축제, 맛있는 인생 -행복은 이런 맛, 스페인>
08:30 우당탕탕 은하인전선	15:4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21:30 한국기행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6:00 마사와 곰	<마음이 이끄는 대로 1부 -남만을 수확합니다>
09:00 마법버스 타요	16:15 개구쟁이 조이	21:50 EBS 다큐프라임
09: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16:30 딩동댕 유치원(재)	22: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30 추피와 친구들	16:50 내 친구 문덕이	23:05 신개념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09:40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5일(음 9월 20일 丙午) ☎ 010-9790-8237

36년생 특징을 잘 파악한다면 형국을 주도 할 수 있게 된다. 48년생 여태까지 조용히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흐름이다. 60년생 순탄하지 않다면 내면에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한다. 72년생 흥결을 보완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84년생 제대로 살펴보고 이해할 것이다. 96년생 기쁨을 나누는 행운이 따른다. 행운의 숫자 : 07, 54	42년생 잘 정리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54년생 대중 넘어 가도 될 문제가 아니다. 66년생 원점으로 회귀하는 형세라고 볼 수 있다. 78년생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은 뒤돌아 볼 필요 없으니 앞만 보고 진행하자. 90년생 노력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국량이니라. 02년생 맹목적이려면 오류를 낳을 뿐이다. 행운의 숫자 : 49, 62
37년생 구태를 과감하게 벗어던져야 참신함을 추구할 수 있다. 49년생 관리에 철저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허점을 날게 할 수 있다. 61년생 덕이 높은 이의 배려를 받을 수 있다. 73년생 가장 실질적인 면에 매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85년생 포부를 펼치려 하든 문제점이 없으나. 97년생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6, 75	43년생 수심이 깊으므로 건너야 할 때가 필요하다. 55년생 합리적인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67년생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발전된 양상으로 이끈다. 79년생 지나간 것으로만 여겨왔던 옛일을 문제 삼을 수도 있겠다. 91년생 따옴기는 목욕을 하지 않아도 희도다. 03년생 성과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다. 행운의 숫자 : 24, 84
38년생 소신껏 임했을 때 탄력이 붙게 되리라. 50년생 길흉이 교차하면서 부침이 심할 수도 있다. 62년생 갈구하고 있다면 쉽게 눈에 띈 것이다. 74년생 길사가 겹치게 되면서 날이 갈수록 점점 비뚤어지게 될 것이다. 86년생 사랑이 깊은 이는 미움 또한 깊은 법이다. 98년생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니 함께하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16, 85	32년생 협력하여 조처한다면 능률을 배가할 수 있다. 44년생 참고 기다린다면 늦게나마 취할 수 있겠다. 56년생 치열하고 집요하게 임한다면 늦게나마 대성하리라. 68년생 파생된 결과는 미래에 대한 교두보가 되겠다. 80년생 전례 이상 치 못했던 기회를 잡는 기쁨이 있다. 92년생 지난번의 형세가 다시 시작 된다. 행운의 숫자 : 38, 87
39년생 잡다한 번거로움을 차치하고 추진하던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51년생 기대하여 왔던 이가 실망을 줄 수 있다. 63년생 맥 빠지게 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 75년생 절만 활용한다면 촉매제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된다. 87년생 확인한 후에 결정해야 할 것이다. 99년생 인간관계로 인해서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2, 56	33년생 대범하게 행동했을 때 수확도 클 것이다. 45년생 본 의욕이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될 수도 있다. 57년생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간발의 차이로 행운을 잡게 된다. 69년생 조건부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거레 방법까지 모색하라. 81년생 편만한 마음으로 회귀하리라. 93년생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행운의 숫자 : 35, 96
40년생 편견을 가진다면 선입감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다. 52년생 전혀 예상치 못한 형국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 64년생 내부적인 단속부터 잘 해두자. 76년생 약 진하는 길목에 들어서고 있느니라. 88년생 마음에 등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아도 된다. 00년생 주위의 환경에 따른 변수가 크니 대안을 마련하자. 행운의 숫자 : 39, 80	34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해야만 하느니라. 46년생 핵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58년생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지 않으면 아니 된다. 70년생 지금은 번거롭더라도 머지않아서 유용한 역할을 하게 된다. 82년생 당위성이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볼 일이다. 94년생 대범하게 넘어가도 된다. 행운의 숫자 : 33, 57
41년생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기이다. 53년생 전체적인 국면을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고찰하자. 65년생 학수고대하여 왔던 행운의 문이 열리는 기쁨을 맞이하겠다. 77년생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밝히면 그만이다. 89년생 돌발 상황이 예상되니 대비해야 한다. 01년생 핵심 가치에 충실하는 것이 생산적임을 알라. 행운의 숫자 : 04, 53	35년생 냉철하게 뒤돌아보라. 47년생 모든 것을 차치하고 속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백 번 낫다. 59년생 파종을 했다 하더라도 손질이 가야 결실이 이르리라. 71년생 새로운 것에 도전 하려는 진취적인 자세가 아쉽다. 83년생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진로에 놓여있다. 95년생 손풍에 돛을 다는 순조롭기 그지없다. 행운의 숫자 : 43, 81